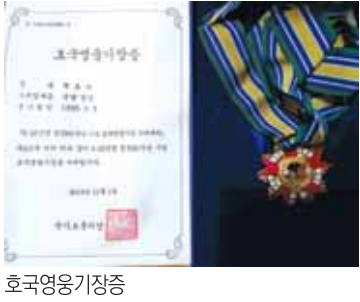


우당(愚塘) 권오수(權五秀) 고문 별세



우당(愚塘) 권오수(權五秀) 대종회(大宗會) 및 파종회(派宗會)의 고문(顧問)은 35세(世)이고 판서공계(判書公系)로서 89세를 일기로 지난 경

자년(庚子年) 12월 13일 자택(自宅)에서 숙환(宿患)으로 별세(別世)하였다. 장일(葬日)은 12월 15일이고 조국(祖國)을 위해 희생(犧牲)한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들만 안장(安葬)이 가능(可能)한 충북 국립괴산호국원으로 납골당과 자연장으로 구분된 고인(故人)의 영원(永遠)한 안식처(安息處)가 될 수 있는 시설(施設)인 충북(忠北)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安葬)되었다.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인자(仁慈)한 성품(性品)으로 여러 사람들의 추앙(推仰)을 받아왔으며, 경감(警監)으로 안동경찰서(安東警察署) 정보과장(情報課長)에서 1991년 6월 30일 퇴임(退任)하였다. 퇴임 후에는 문사(門事)에 적극적(積極的)으로 참여(參與)하였는데 안동종친회안동사무소(安東宗親會安東事務所)의 각종업무를 수년 동안 주관(主官)하기도 하였다. 안동권씨대종회(安東權氏大宗會)와 안동권씨안동종친회(安東權氏安東宗親會), 안동권씨북아공파종회(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 등의 고문(拷問)으로 문사(門事)에 관심(關心)을 가지고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동(活動)하였다.

슬하(膝下)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은 과천개발대표이사 권혁창(權赫昌), 자부는 고등학교 교사 임숙, 차남은 권혁두, 장녀 권동연, 사위 황현호(黃鉉虎)는 법관(法官) 출신으로 현재 퇴임(退任)하여 변호사(辯護士)로 활동(活動)하고 있다. 대중회 권계동 고문

장인어른의 영전에 바치는 헌시獻詩

이천이십년 십이월 십삼일
천지를 구분할 수 없이
내리는 하얀 눈 세상
고향산천에서 들은 어른의 별세 소식

승용차 몰고 빈소 가는 길에
눈발이 앞을 가로 막는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초겨울 한파를 뚫고
도착한 장례식장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이왕 돌아가신 분
어지럽게 내리는 하얀 눈을 맞으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 환참을 서성인다.

문상객 없는 빈 장례식장은 쓸쓸하기만하고
옥양목 천에 싸여진 어른은 말씀이 없다
갑자기 찾아온 이별
추상같은 생과 사의 갈림길

어제도 통화하고
오늘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다는데
점심 무렵 날라든 비보

아무리 곡을 한들
어른은 들을 리 없고
오직 산 자들이 죽음 앞에서
흐느끼는 허무의 멜로디

아, 얼마만인가
삼십 육년 전 군대생활 중
만났던 인연의 줄
오늘 끊어지는가

문상객과 조화마저
이별을 고할 시간
육신은 허공에 날아가 재가 되어
괴산 호국원 돌담에 떨어지고
영혼은 안동 하늘 저자거리에
기억으로 남아 있으리

내자와 싸우더라도
어른을 생각하며
물려서기를 수십 번
이제 누구를 생각하며 물려서야 하나

고인의 여서女壻 황현호黃鉉虎 헌상獻上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권덕철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24일(목)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4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1961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차



관에서 퇴임한지 1년 7개월 만에 장관으로 취임했다.

권혁운 아이에스동서(주)회장 이웃돕기 성금 쾌척



아이에스동서㈜ 권혁운(복야파 36세) 회장은 1950년 생 경북 의성 출신으로 지난 11일 경산시청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모

금 운동에 동참하고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을 위해 경산시청을 대신 방문한 허석현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은 17일 대구시 권영진 시장에게도 사랑의 집수리·이웃사랑 성금 2억원을 전달하였으며, 부산시에도 3억원을 기부하여 코로나19와 경제불황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시에는 4년간 매년 2억원을 기탁하였고, 경산시에도 총 3억원을 기탁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상가임대료 3개월간 50% 약 5억5,000만원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행하였고, 부산지역 아동센터 결식

아동 긴급지원 1억 5,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은 2016년부터 사채 140억원 을 출연해 문암장학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저소득, 차상위,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공부방 설립기금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동안 361억원을 쾌척하여 안동 권문을 빛내고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우리시도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성금을 기탁해주신 아이에스동서㈜에 감사드리고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주)동서아이에스(회장 권혁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건설과 자재종합기업으로 일관화 하여 생산하는 업체로서, KOSPI200상장회사로서 건설과 제조부문에 1,500명의 임직원이 국내 및 해외공장에서 첨단기술과 시너지 극대화로 품질 높은 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100년의 꿈을 이뤄 나가고 있는 45년의 역사를 가진 발전하는 기업이다.

[한정 타임즈 권성욱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왼쪽), 권혁운 회장(가운데)

동정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 병)이 4일 오후 4시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의 의정대상 선정은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공헌도를 인정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권혁빈 스마트에이치트 희망 스톱 디오 재단 이사장이 지난 8일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보관문화훈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상으로, 2020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최고상이다. 권혁빈 이사장은 스마트에이치트 창업자이다.



▲건국대학교 권혁교 교수(가정신교육, 정책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과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재원 연구소장(이사)은 '제34회 섬유'의 날을 맞아 2020년 섬유패션산업발전 유공부

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자인의 권 소장은 지난 21년간 끊임없는 신제품개발을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혁기(58) 강릉 왕산종묘 대표



가 2020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발전 기술보급의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강릉농공고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감자학과를 졸업한 권 대표는 감자재배에 종사하면서 단오, 백작 등 신품종을 개발했다. 또 개발한 신품종을 전국의 감자 특화 단지과 농협, 농업인들에게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대표는 지난 2017년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식량작물 감자)에 선정된 바 있다.



▲권대규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권 교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희망전복 POST-BI 센터장 겸임)을 맡아 200여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창업보육센터 발전과 전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상집 한성대 교수가 한 국 지식경영 학회로 부터 최다 인용 논문상을 받았다. 해당 논문

은 2016년 권 교수가 게재한 '서버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 협회장이 21일 중국 홍콩강신문 한국자문위원장 겸 해외논설

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023년 12월 20일까지이다. 또한 홍콩강신문은 한국과 홍콩강성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고 하얼빈 안중근동양평화문화축제를 운영한 공로로 권 회장에 한중 우호 공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權紀 1100년의 역사책(通史) 발간 사업 안내

대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권기 1100년의 역사책 발간 사업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권웅렬 고문의 비용 전액 후원에 힘입어 발간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千百年史’를 집필·발간합니다.

- 안동권씨 100만 족친께서는 일체의 비용은 무료이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직계조와 방계조의 위대한 업적과 공(功) 등이 벽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안동권씨 1100년 역사책에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각 파종회와 지역종친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님과 지역인물들이 빠짐없이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 기 : 안동권씨 득성(得姓) 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 집필대상

-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 3정승 6판서 등 문무관 9품 이상, 청백리, 공신, 과거급제자. 부마(駙馬), 의병, 열사, 정려문이 세워진 충신·효자·효부, 열녀, 내·외명부 등에 들어간 안동권문의 여인 등
-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강점기 때 공신, 의병, 자선가, 독립운동가 등

○ 문의 : 전화번호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 편집국장 권행완 010-6892-5253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hanmail.net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